

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산업의 미래 대응 전략

- 은행 및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-

2024. 6. 27

한국금융연구원
선임연구위원 이병윤

TABLE OF CONTENTS

I. 서론

II. 우리나라 은행 및 보험산업 현황

1. 은행산업 현황
2. 보험산업 현황

III. 금융환경의 변화와 영향 및 대응방안

1. 저성장의 고착화
2. 저출생 및 인구고령화
3.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금융업 적용 확대
4. 탄소중립 강화, ESG공시 의무화
5. 경쟁강화
6. 인공지능의 활용 확대
7. 비금융과의 융합

TABLE OF CONTENTS

I. 서론

II. 우리나라 은행 및 보험산업 현황

1. 은행산업 현황
2. 보험산업 현황

III. 금융환경의 변화와 영향 및 대응방안

1. 저성장의 고착화
2. 저출생 및 인구고령화
3.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금융업 적용 확대
4. 탄소중립 강화, ESG공시 의무화
5. 경쟁강화
6. 인공지능의 활용 확대
7. 비금융과의 융합

I 금융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

- 최근 우리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구조적으로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으며 금융회사들은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미리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.
- 최근 우리 금융산업에 구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의 변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음.
 - 저성장의 고착화 :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음.
 -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 : 저출생으로 이미 인구가 감소세이며,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중임.
 -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금융업 적용 확대 : 4차 산업혁명에 따른 AI,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의 발전이 금융부문에서 파괴적 혁신을 이끌고 있음.
 - 탄소중립 강화, ESG공시 의무화 :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며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고 ESG공시 의무화가 확산되고 있음.

I 금융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 (계속)

- 경쟁강화 : 금융당국의 금융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경쟁강화 정책, 핀테크·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증가, 금융업 간 겸업화와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금융산업의 경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.
 - 인공지능(AI)의 활용 확대 : 최근 챗GPT 등 인공지능 혁신이 나타나면서 이의 금융업 적용이 확대되고 있음.
 - 비금융과의 융합 : 전세계적으로 금융과 비금융이 양방향으로 융합되는 '빅블러' 현상이 나타나면서 금융업에서 혁신이 나타나고 있음.
-
- 본고에서는 이처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금융환경의 구조적 변화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금융회사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함.

TABLE OF CONTENTS

I. 서론

II. 우리나라 은행 및 보험산업 현황

1. 은행산업 현황
2. 보험산업 현황

III. 금융환경의 변화와 영향 및 대응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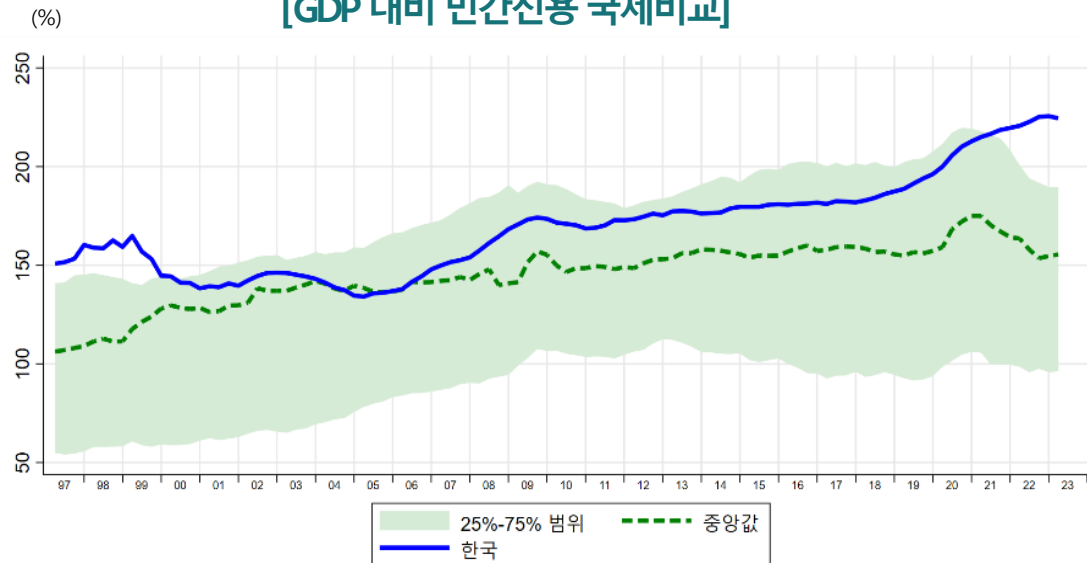
1. 저성장의 고착화
2. 저출생 및 인구고령화
3.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금융업 적용 확대
4. 탄소중립 강화, ESG공시 의무화
5. 경쟁강화
6. 인공지능의 활용 확대
7. 비금융과의 융합

Ⅱ-1 은행산업 현황

▪ 국내은행 성장세 둔화는 지속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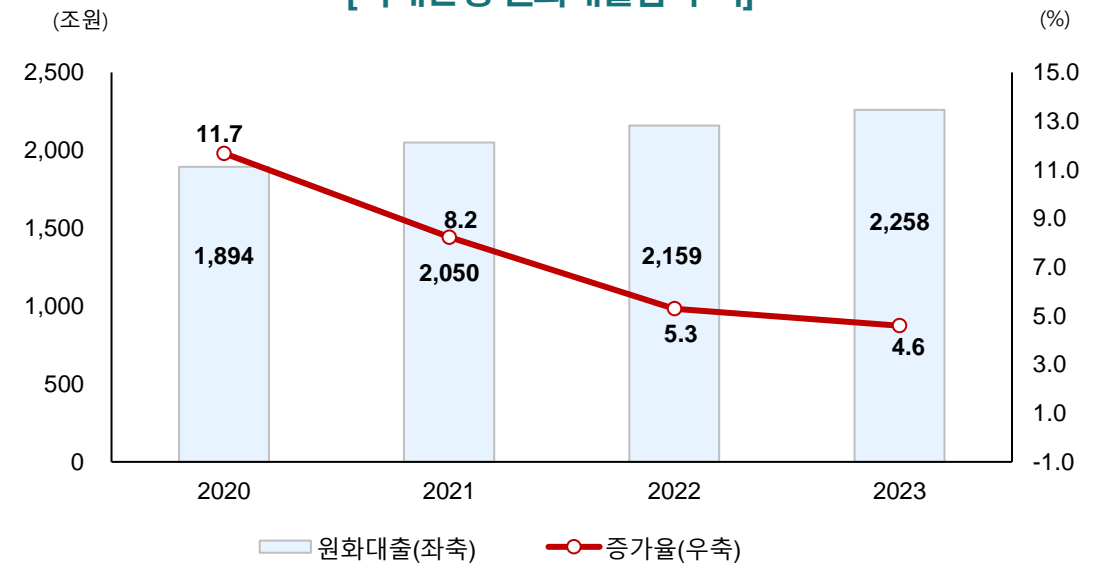
- 국내은행 성장세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이후 둔화세 지속
- 거시적으로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중이 이미 높아 부채를 추가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
- 대출수요 측면에서는 2024년 시장금리가 소폭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차주의 대출수요가 높지 않을 전망
- 대출공급 측면에서는 신용위험 상승으로 리스크관리 기조가 강화되어 대출공급 축소 전망
- 국내은행의 2024년 대출 증가율은 작년보다 소폭 둔화될 전망

[GDP 대비 민간신용 국제비교]



주: 25%~75% 범위는 각 분기별 GDP 대비 민간신용 데이터의 1사분위수~3사분위수 범위를 뜻함.
 자료: BIS, 한국금융연구원 분석

[국내은행 원화대출금 추이]



주: 은행 간 대여 제외한 원화대출금 기준
 자료: 금융감독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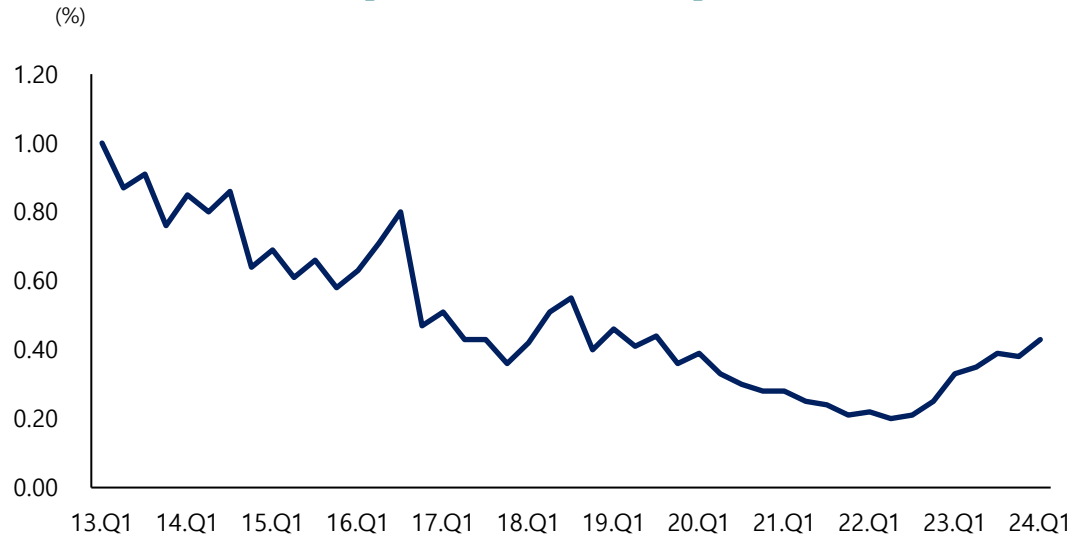
Ⅱ-1 은행산업 현황 (계속)

■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작년보다 증가할 전망

- 국내은행의 분기별 연체율은 2022년 6월 말 이후 그간의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고 지속적인 상승세
- 고금리 지속, PF부실 문제 지속, 이자보상비율 100% 미만 기업의 비중 증가 등 → 은행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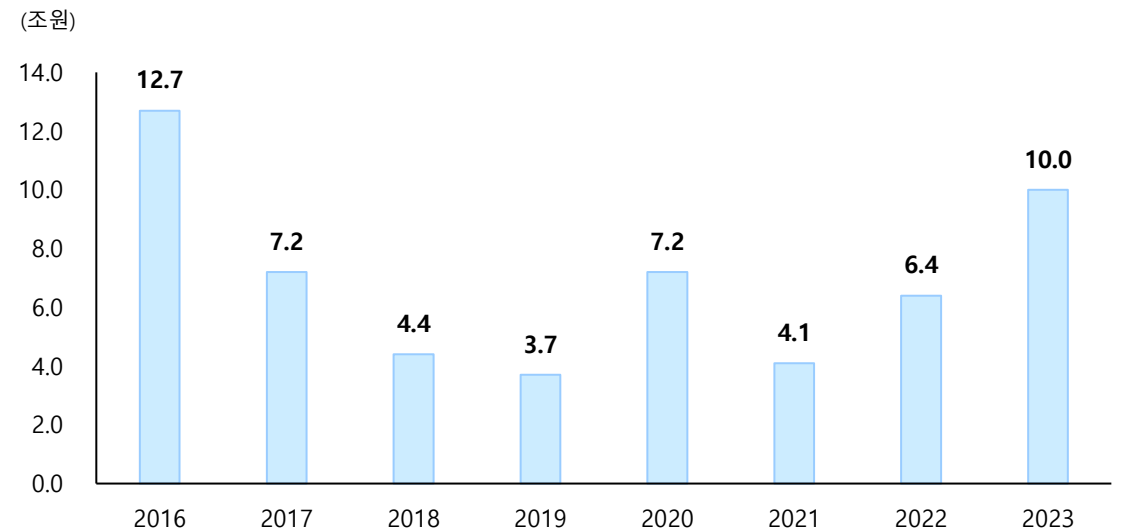
* 이자보상비율 100% 미만 기업 비중 : 2014년 이후 26~28% 수준 유지, 2018년 이후 30% 상회, 2022년 35.1%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(30.9%)보다 높은 수준

[국내은행 연체율 추이]



주: 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
자료: 금융감독원

[국내은행 대손충당금 순전입액 추이]



자료: 금융감독원

Ⅱ-1 은행산업 현황(계속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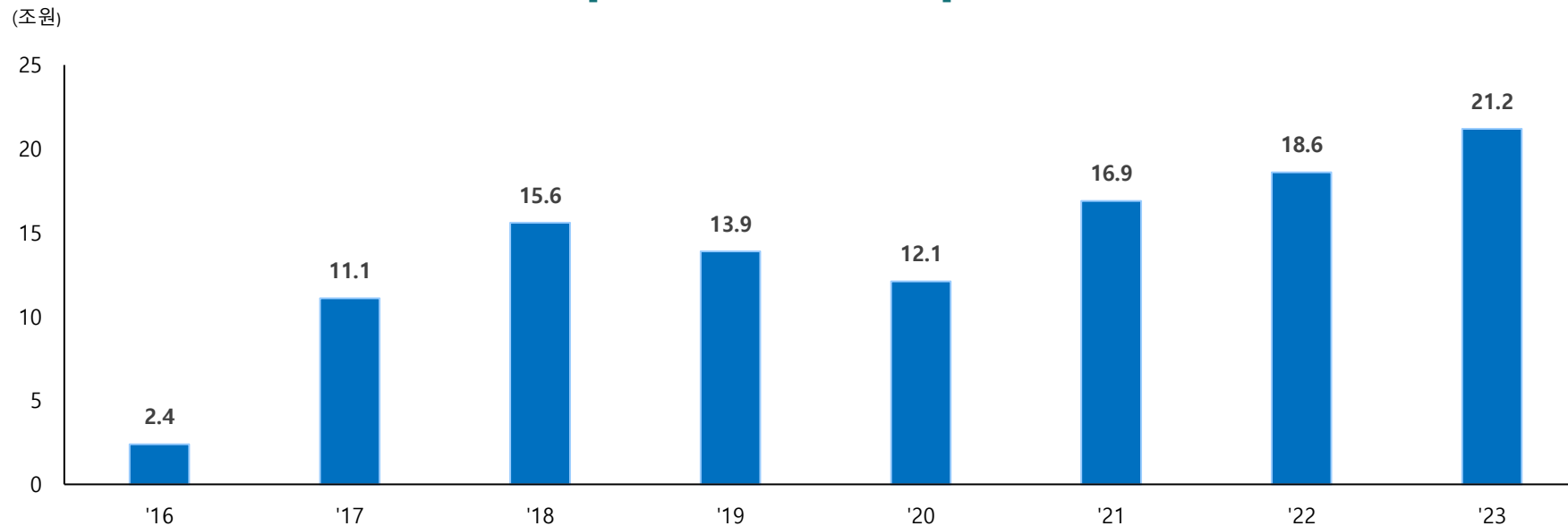
▪ 2024년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올해 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

- 기준금리 인하 지연으로 이자이익은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
- 그러나 가계대출 총량규제 지속, 은행 간 기업대출 경쟁 심화, 고금리로 대출수요도 높지 않아 당기순이익 증가가 어려울 전망

* 또 작년 금융당국이 “은행권 경영·영업 관행·제도 개선 방안” 발표 이후 은행권 경쟁강화에 관심을 두고 있어 은행 이익이 늘어나기 어려운 환경

- 고금리 지속으로 기업부실이 현실화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지고 있음.

[국내은행 당기순이익 추이]



자료: 금융감독원

TABLE OF CONTENTS

I. 서론

II. 우리나라 은행 및 보험산업 현황

1. 은행산업 현황
2. 보험산업 현황

III. 금융환경의 변화와 영향 및 대응방안

1. 저성장의 고착화
2. 저출생 및 인구고령화
3.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금융업 적용 확대
4. 탄소중립 강화, ESG공시 의무화
5. 경쟁강화
6. 인공지능의 활용 확대
7. 비금융과의 융합

Ⅱ-2 보험산업 현황

- **보험산업 성장성은 신규 수요 축소 및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둔화 전망**
- **저출산·고령화, 경쟁심화 및 시장포화 등으로 신규 보험가입 감소 전망**
 - 저출산, 시장포화 등으로 보험 수요 위축 및 신계약 가입 대상 감소, 수지차비율 하락 우려
- **고금리 기조 장기화, 금융시장 불확실성 상존 등은 성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**
 - 고물가·고금리 환경 지속에 따른 실질 가치분소득 감소와 가계부채 상환 부담 증대로 가계의 신규 보험 가입 및 계약유지 여력 하락
 -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및 불확실성으로 인한 저축성 및 투자형(특히 변액보험) 보험상품 수요 위축

Ⅱ-2 보험산업 현황

- 수익성은 보험포트폴리오 개선, 투자영업손익 변동성 확대 등이 혼재하며 유지 또는 소폭 개선 예상
- 2024년 생명보험사의 수익성은 작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
 - IFRS17 시행에 따른 보장성보험 위주의 포트폴리오 조정, 고금리기조하에 자산운용수익률 개선 (+)
 - 의료비 지출증가 등에 따른 예실차 이익감소, IFRS9 시행으로 투자영업손익 변동성 확대 및 고금리 기초하에 자본조달 비용 증가 (-)
- 2024년 손해보험사의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의 유지 전망
 - 손해보험사는 보장성상품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CSM 상각수익 증가, 고금리 기초하 투자영업 이익개선 (+)
 - 의료서비스 이용 및 차량 운행량 증가, 자연재해 확대 등으로 손해율 상승, 자동차보험료 인하압력 증대 (-)

Ⅱ-2 보험산업 현황

- 건전성은 금리민감도 완화 및 CSM 산출기준 강화 등으로 유지 또는 소폭 하락 예상

- 2024년 생명보험사의 건전성은 전년 수준 유지 또는 소폭 하락 전망
 - K-ICS 시행으로 인한 부채 시가평가로 금리변동에 의한 자본비율민감도 감소(+)
 - 자본성 증권 조기상환 압력 및 조달금리 상승, CSM 산출기준 강화(-)

- 2024년 손해보험사의 건전성은 전년 수준 유지 또는 소폭 하락 전망
 - 안정적인 CSM 확보로 가용자본 증가, 금리 민감도 완화 (+)
 -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및 기초 가정 위험액 적용 등 CSM 산출기준 강화 영향 (-)

TABLE OF CONTENTS

I. 서론

II. 우리나라 은행 및 보험산업 현황

1. 은행산업 현황
2. 보험산업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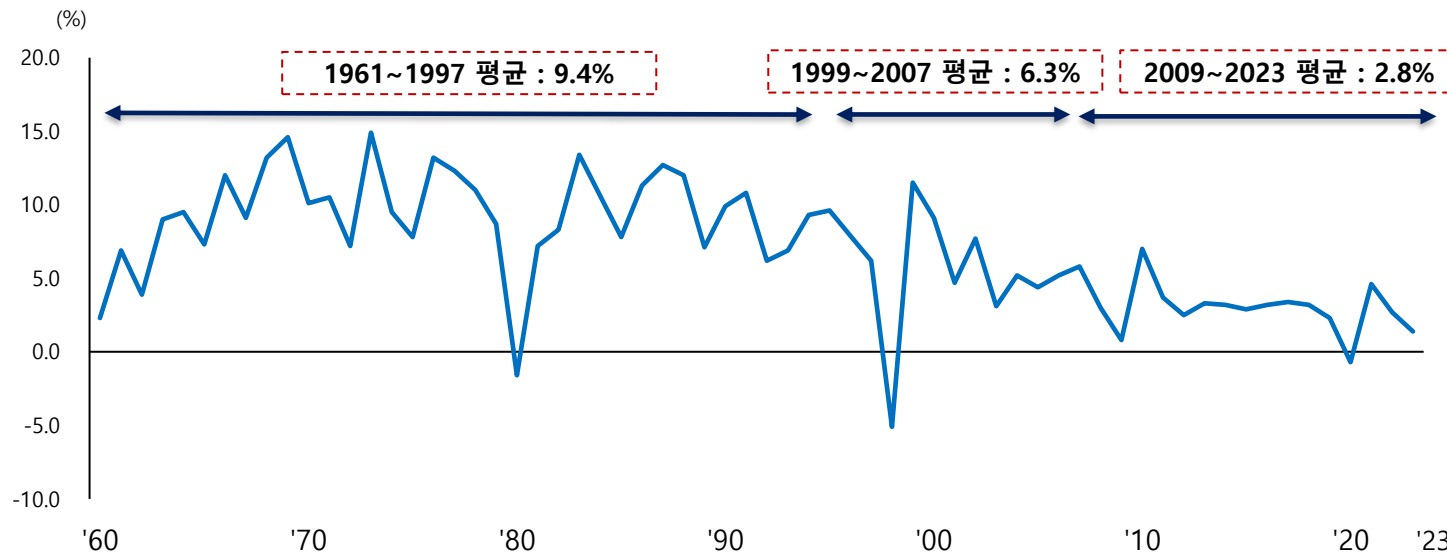
III. 금융환경의 변화와 영향 및 대응방안

1. 저성장의 고착화
2. 저출생 및 인구고령화
3.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금융업 적용 확대
4. 탄소중립 강화, ESG공시 의무화
5. 경쟁강화
6. 인공지능의 활용 확대
7. 비금융과의 융합

Ⅲ-1 우리나라 저성장 고착화 현황

-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도별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다음과 같음.
 - 1961~1997년 : 약 9.4% (외환위기가 발발한 1998년 직전까지)
 - 1999년~2007년 : 약 6.3% (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까지)
 - 2009년~2023년 : 약 2.8% (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최근까지)
- * 2009년~2019년 : 약 3.1%(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019년까지)
- * 2020년~2023년 : 약 1.9% (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한 2020년부터 최근까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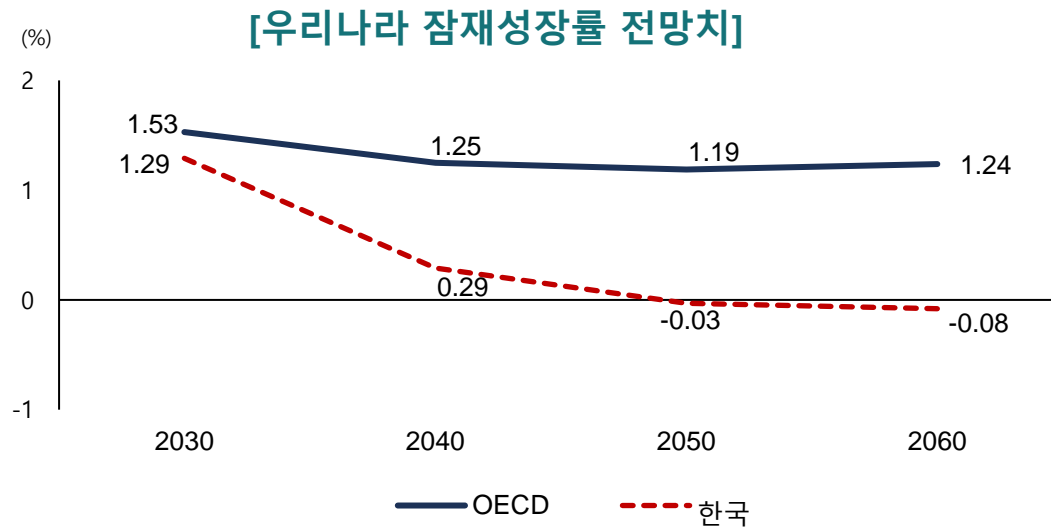
[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추이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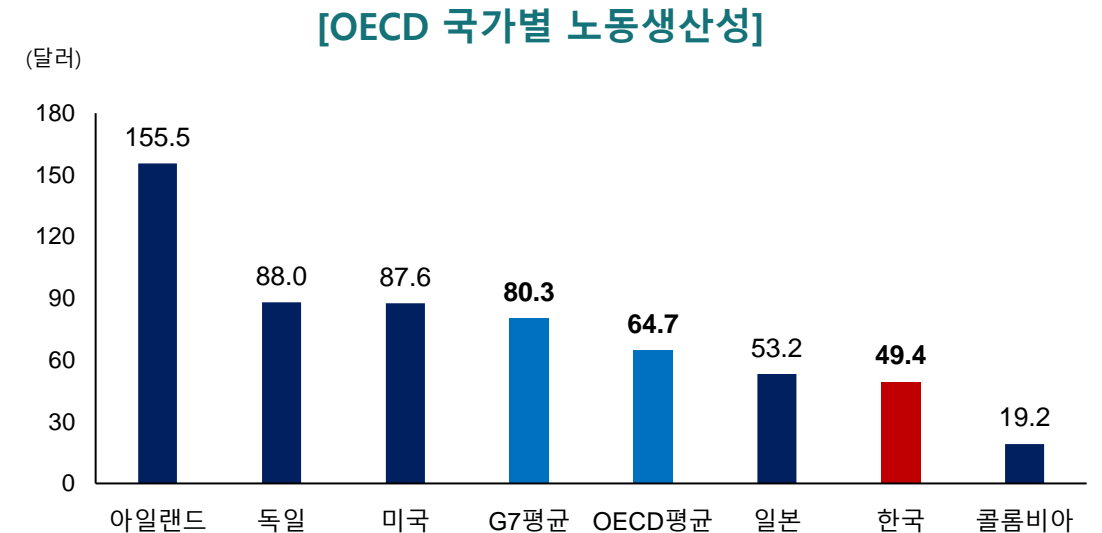
자료 : 한국은행

Ⅲ-1 우리나라 저성장 고착화 현황 (계속)

- OECD는 2030년 이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 - 205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
- 우리나라의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잠재성장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
 -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
 - 노동시장 경직성 등에 따른 노동생산성 정체
 - 새로운 기술의 개발보다는 첨단기술의 추격에 의존하던 형태의 기술발전에 한계 등



자료 : OECD, '22년 10월 전망 기준



주 : 2022년 기준
자료 : OECD

Ⅲ-1 저성장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

- **이자이익 위주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은행 수익성 저하**
 - 저성장으로 대출수요 하락 → 국내은행 이자수익 하락
- **은행들의 여신건전성 악화 우려**
 - 저성장 지속 → 한계기업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 증가
 - 저성장 지속 → 은행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위험자산 투자 확대 → 은행들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 증가
- **저성장 → 기업활동 위축 →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위축 → 기업활동 위축의 악순환**
- **국내은행은 비이자이익 확대, 해외진출 확대, 디지털금융 강화 등 수익성 개선 노력 필요**
 - 우리보다 먼저 저성장·저금리 환경을 경험한 일본계 은행들은 비이자이익 확보를 위해 경쟁력 강화, 해외투자 확대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는 등 수익성 개선 노력을 해옴.
- **보험산업도 수요 감소 전망**

TABLE OF CONTENTS

I. 서론

II. 우리나라 은행 및 보험산업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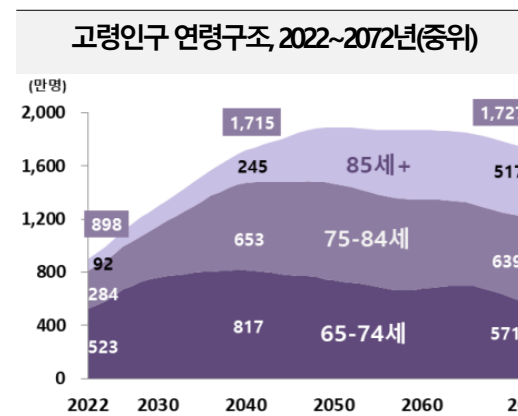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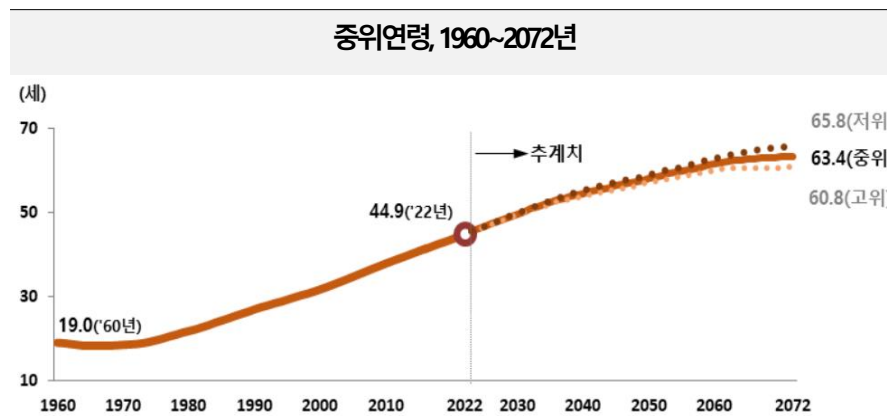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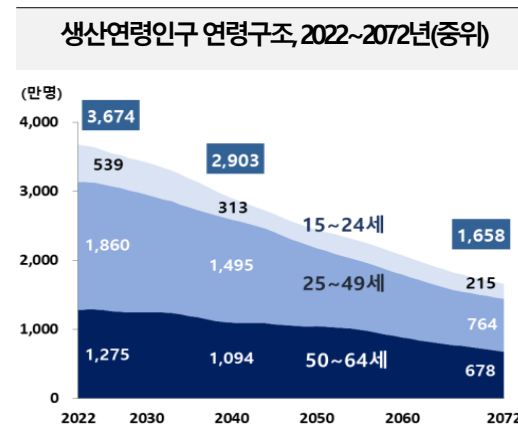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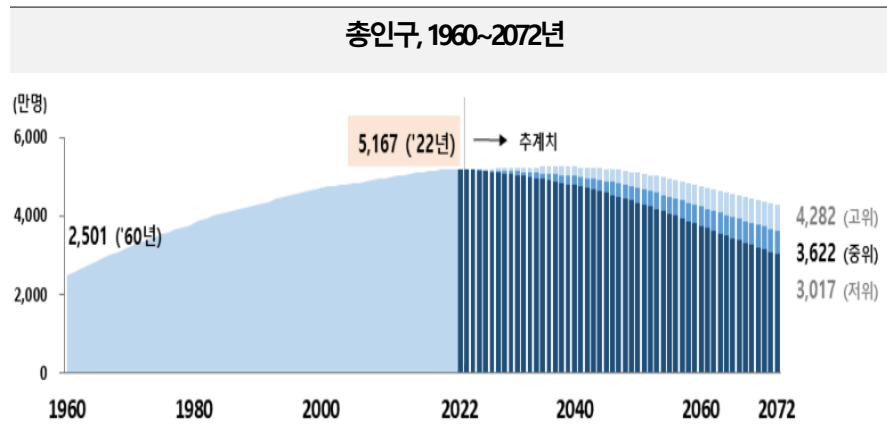
1. 은행산업 현황
2. 보험산업 현황

III. 금융환경의 변화와 영향 및 대응방안

1. 저성장의 고착화
2. 저출생 및 인구고령화
3.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금융업 적용 확대
4. 탄소중립 강화, ESG공시 의무화
5. 경쟁강화
6. 인공지능의 활용 확대
7. 비금융과의 융합

Ⅲ-2 저출생 및 인구고령화 현황

- 저출생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이후 감소세, 생산연령인구도 감소세, 고령화로 중위연령이 높아지고 고령인구 비중도 크게 증가할 전망
 - 총인구는 2022년 5,167만명에서 2072년 3,622만명 정도로 감소할 전망
 -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대에 연평균 32만명씩 감소하고, 2030년대에는 50만명씩 감소할 전망
 - 인구 고령화로 중위연령은 2022년 44.9세에서 2072년 63.4세로 높아질 전망
 -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 20%(초고령사회), 2036년 30%, 2050년 40%를 넘어설 것으로 보임.



자료: 통계청 장래인구추계(2022~2072)

Ⅲ-2 저출생 및 고령화가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

▪ 은행업

- 고령층 증가 → 가계부문 저축 위축 → 은행 수신기반 악화 및 조달구조 안정성 저하
- 인구 감소, 생산연령 인구 감소 → 신용수요 감소 → 은행 수익성 저하 (→ 수익성 증대를 위한 은행의 리스크 테이킹 ↑ → 은행 건전성 악화 가능성)
- 고령화 및 기대수명 증가 → 미래소득을 당겨쓰는 대출은 줄고 은퇴자산 관리 수요는 증가 → 은행의 주력 비즈니스가 대출에서 자산관리·신탁 등으로 변화
- 부동산 가치의 평균적인 하락, 지역적 편차 확대 → 담보가치 하락 및 변동성 확대 가능성

▪ 보험업

- 인구 감소 → 보험가입 여력 소비자 수 감소 → 보험사 성장성 및 전반적인 경영실적 위축
- 평균수명 증가 → 사망보험 수익성 개선, 사망보험 수요 감소, 연금상품 수익성 악화 (장수 리스크)
- 인구 감소 → 손해보험 위축
- 청년인구 감소, 고령인구 증가 등 → 보험상품 수요의 구조적 변화

TABLE OF CONTENTS

I. 서론

II. 우리나라 은행 및 보험산업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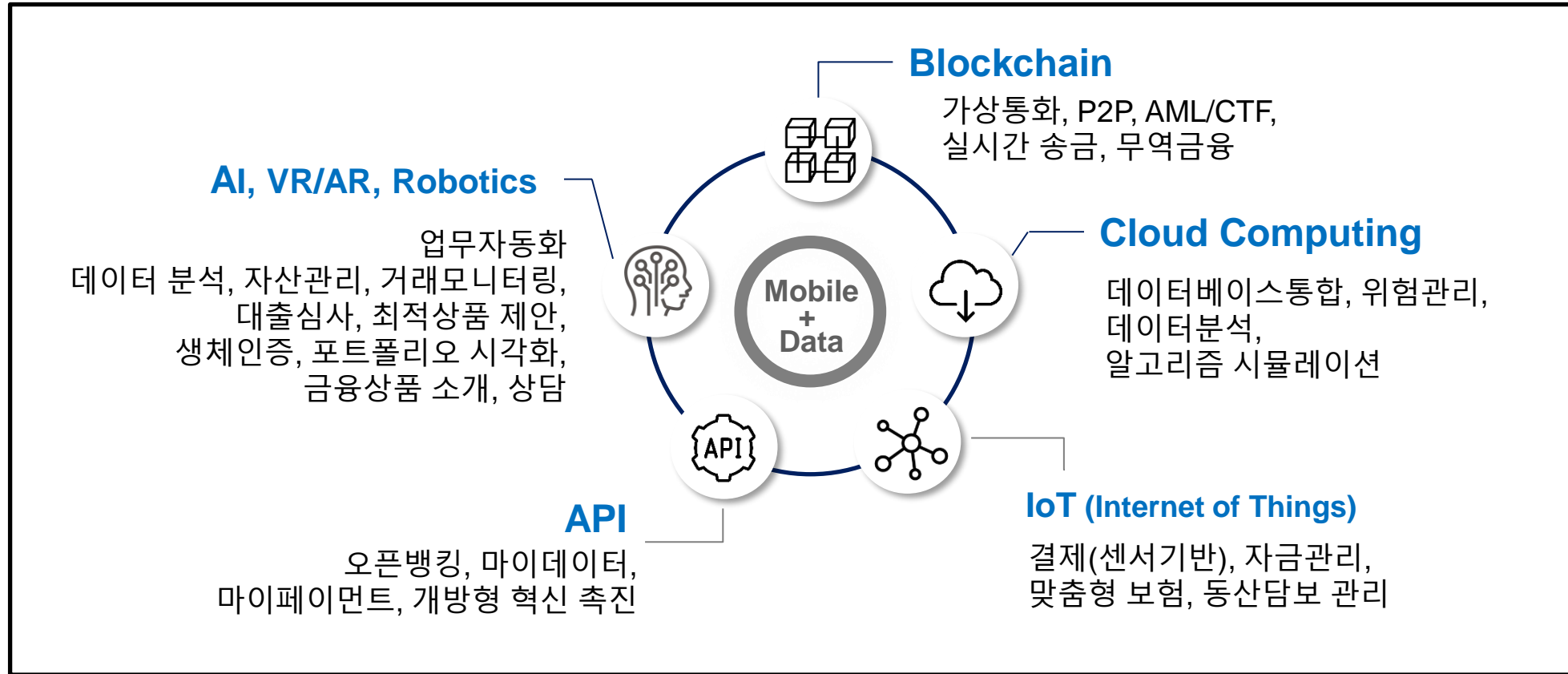
1. 은행산업 현황
2. 보험산업 현황

III. 금융환경의 변화와 영향 및 대응방안

1. 저성장의 고착화
2. 저출생 및 인구고령화
3.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금융업 적용 확대
4. 탄소중립 강화, ESG공시 의무화
5. 경쟁강화
6. 인공지능의 활용 확대
7. 비금융과의 융합

Ⅲ-3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금융업 적용 확대

-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와 함께 인공지능, API, 빅데이터, 클라우드 컴퓨팅,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 발전이 금융부문에서 파괴적 혁신을 이끌고 있음.



Ⅲ-3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금융업 적용 확대 (계속)

-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은행 상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거나,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금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함
→ 고객 접점(판매채널)이 이동
 - 간편결제, 간편송금, P2P금융, 로보어드바이저, 소액투자상품 등 온라인 전용상품 등
 - 고객별 맞춤형(customized)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

-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업무비용의 절감 등 은행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

- 지속적인 IT 투자 및 시장경쟁 심화로 인한 은행 수익성 저하, 가계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자동화에 따른 인력수요 감소, 대면영업을 위한 인력 및 점포의 축소, 지원조직의 구조 변화 등에 직면
 - Digital Transformation이 핵심 경영전략으로 부상 → Digital ROI 관리가 중요
 - 고객 니즈를 신속히 파악하고 seamless하게 대응 → customer-centric 조직으로 전환

- 다양한 경쟁자 출현, 경쟁 심화, 비금융부문과 결합, 플랫폼 선점 경쟁 등
 - 디지털 기술의 발전 → 비용절감, 생산성 증대 → 은행서비스의 분화, 규제완화 → 새로운 경쟁자(BigTech 등)의 출현 → 경쟁 심화

TABLE OF CONTENTS

I. 서론

II. 우리나라 은행 및 보험산업 현황

1. 은행산업 현황
2. 보험산업 현황

III. 금융환경의 변화와 영향 및 대응방안

1. 저성장의 고착화
2. 저출생 및 인구고령화
3.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금융업 적용 확대
4. 탄소중립 강화, ESG공시 의무화
5. 경쟁강화
6. 인공지능의 활용 확대
7. 비금융과의 융합

Ⅲ-4 탄소중립 강화, ESG공시 의무화 현황

▪ 지구 온난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 현황

- 1992년 'UN 기후변화협약(UNFCCC)'체결을 기점으로 전세계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동의 노력 시작
- 교토의정서(1997년) :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선진국에만 부과
- 파리기후변화협약 (2015년) : 당사국 모두가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의무화
-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의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,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 (NDC) 발표 합의

[주요국 탄소중립 선언 및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]

국가	2030년 감축목표(NDC*)	탄소중립 목표	법제화
EU	55% 감축('90년 대비)	2050년	유럽기후법
독일	65% 감축('90년 대비)	2045년	기후변화법
영국	68% 감축('90년 대비)	2050년	기후변화법
미국	50~52% 감축('05년 대비)	2050년	정책서
중국	60~65% 감축('05년 대비)	2060년	정책서
일본	46% 감축('13년 대비)	2050년	정책서
한국	40% 감축('18년 대비)	2050년	탄소중립기본법

주 :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EU, 미국, 일본 등은 2030년 자발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, NDC)를 상향한 바 있다.

Ⅲ-4 탄소중립 강화, ESG공시 의무화 현황 (계속)

▪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ESG공시 규제 현황

- ISSB(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)

* 2023.6.26일 지속가능성 공시 첫 기준서인 'IFRS S1 일반 요구사항'과 'IFRS S2 기후 관련 공시' 확정 발표

* IFRS S1 일반 요구사항 :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관한 중요 정보를 지배구조, 전략, 위험관리, 지표 및 목표 등 4가지 핵심요소 관점에서 공시하도록 요구

*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: 기후 관련 위험(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,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전환위험 등)에 대한 정보를 지배구조, 전략, 위험관리, 지표 및 목표 등 4가지 핵심요소의 관점에서 공시하도록 요구

- EU

* 2023.10.18일 유럽의회가 '지속가능성 보고 지침(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, CSRD)'을 2024년부터 도입하는 내용의 결의안 통과 → EU에서 영업하는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들은 ESG와 관련하여 강화된 공시의무

* 2024.2.7 EU이사회와 유럽의회는 환경적 영향이 큰 8개 산업에 대한 ESG공시 도입 시기를 2026. 6월로 2년 유예(다소 후퇴)

※ 8개 산업 : 석유 및 가스, 석탄·채석장 및 광업, 도로 운송, 농림어업, 자동차, 에너지 및 유틸리티, 음식료, 직물·액세서리·신발 및 보석류

Ⅲ-4 탄소중립 강화, ESG공시 의무화 현황 (계속)

- 미국

- * 2022.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가 미국 상장기업의 기후관련 정보공시 의무화 규정 초안 공개
- * 기후공시 내용 : 기후관련 위험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, 탈탄소 전환비용, 온실가스 배출량 등
- *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: 스코프 1, 2 배출량은 규모가 큰 기업에 한해 공시, 스코프 3 배출량 공시는 제외 (당초 예상보다 후퇴)

- 우리나라

- *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본방향과 초안 공개 (24.4.22)
- *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'기후'분야부터 공시 의무화
- * 공개초안에 대한 기업, 투자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KSSB가 공시기준 마련 예정
- *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시기 (2026년 이후) 등 검토

Ⅲ-4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

■ 금융회사 전반

- 금융회사의 자원배분, 포트폴리오 구축에서 기후리스크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조직과 지배구조 체계 재구축 준비 필요
 - * 금융회사에서 리스크관리 부서가 영업부서에 비해 각광받지 못하는 것과 같이 기후리스크를 회사 전반의 경영과 영업에 반영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임.
- 기후리스크의 식별, 측정, 평가, 보고 및 모니터링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필요
- 기후리스크 공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
- 차별성을 확보한 녹색금융상품 개발

■ 은행

- 고탄소산업 영위 기업의 자산건전성 약화에 대비할 필요
 - * 포트폴리오 내에서 고탄소산업에 대한 자산 축소 전략 수립 필요
- 향후 스코프 3 배출량 공시에 대비
 - *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고탄소산업 비중 ↓, 저탄소산업 비중 ↑
 - * 우리나라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이 많아 어려움 겪을 가능성
 - ※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후정책 변화에 따른 생산프로세스 변화, 저탄소 기술 적용 및 업종 전환의 용이성·유연성이 낮고 관련 비용이 커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음.

TABLE OF CONTENTS

I. 서론

II. 우리나라 은행 및 보험산업 현황

1. 은행산업 현황
2. 보험산업 현황

III. 금융환경의 변화와 영향 및 대응방안

1. 저성장의 고착화
2. 저출생 및 인구고령화
3.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금융업 적용 확대
4. 탄소중립 강화, ESG공시 의무화
5. 경쟁강화
6. 인공지능의 활용 확대
7. 비금융과의 융합

Ⅲ-5 금융당국의 경쟁강화 정책 지속

- 그간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, 오픈뱅킹 시행, 종합지급결제업 허용, 핀테크, 빅테크의 일부 금융업 수행 허용 등을 통해 은행산업의 경쟁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음.

- 한편 2023년 금융당국은 “은행권 경영·영업 관행·제도 개선방안”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방안 제시
 - 은행이 해외진출을 잘 하지 못하고 내수 기반 이자이익 위주 수익에 의존 → 은행 이익에 대한 사회적 불만 지속
 - 금융당국은 은행산업 경쟁강화 정책 지속 추진 가능성
 - 제도적으로 은행산업 (여타 금융산업도 유사) 경쟁 강화 지속 가능성

Ⅲ-5 금융당국의 경쟁강화 정책 지속(계속)

["은행권 경영·영업관행·제도 개선방안" 주요 내용]

	은행간 경쟁	은행-비은행간 경쟁
경쟁구도 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은행 등의 시중은행 전환 • 은행 신규인가 지속 추진 • 특화전문은행 지속 검토 • 지방은행·외은지점 규제개선 •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개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확대 •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
디지털채널 관련 경쟁구도 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터넷전문은행-지방은행 공동대출 샌드박스를 통한 경쟁촉진 대환대출인프라 구축 및 확대 온라인 예금증개 서비스 도입 및 확대 	

Ⅲ-5 핀테크·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

- 4차 산업혁명,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전

 - 핀테크를 넘어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빅테크(BigTech)가 금융서비스의 범위를 넓히며 금융업 진입 확대(금융시장 경쟁강화에 일조)
 - 세계적으로는 "GAFA", "BATH" 등 대형 빅테크가 막강한 플랫폼과 축적된 정보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업 진출 확대
 - * GAFA (Google, Amazon, Facebook, Apple), BATH (Baidu, Alibaba, Tencent, Huawei)
 - 국내에서는 카카오, 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간편결제·송금 서비스, 예·적금, 대출, 펀드, 보험 서비스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업 진출 확대

- 빅테크는 플랫폼 내 풍부한 고객데이터와 브랜드 인지도, 충성스러운 고객군을 가지고 있고 핀테크와 달리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은행 및 보험회사 등 기존 금융회사들과 경쟁관계 불가피

Ⅲ-5 핀테크·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(계속)

▪ 핀테크의 기존 은행 대비 강점

- 디지털금융은 자본집약적이 아니고 기존 인프라 활용도도 낮아 신생기업에 유리
- 은행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최근의 디지털금융에 맞게 활용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짐.
- 핀테크 기업의 인력은 혁신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은행 인력은 그렇지 않음.
- 핀테크 혁신을 유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도 도움
- 은행은 대형기관의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음.

▪ 빅테크의 은행 및 핀테크 대비 강점

- 빅테크는 기본적으로 핀테크의 강점을 대부분 가지고 있음.
- 충성도 높은 고객과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형성된 강력한 플랫폼
 - 강력한 고객 접점 및 다양하고 풍부한 고객정보 확보라는 측면에서 대단한 강점
- 빅테크는 대형은행과 유사하거나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기존 은행의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구식 IT시스템, 관료적인 대규모 조직 이슈가 거의 없음.

Ⅲ-5 핀테크·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(계속)

▪ 핀테크·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긍정적 효과

-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 등으로 혁신 유도
- 금융산업 내 경쟁 강화로 금융소비자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금융서비스 제공 → 금융소비자 후생 증대
- 빅테크는 고객의 다양하고 풍부한 데이터를 금융데이터와 결합하여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가능
-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 →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과 편의성 증대
- 개도국의 경우 빅테크가 기존 금융시스템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들에게 금융서비스 제공 → 금융포용(financial inclusion) 달성

Ⅲ-5 핀테크·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(계속)

■ 핀테크·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부정적 효과

- 빅테크의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독과점화 가능성
- 금융안정성 저해 가능성
 - * 빅테크와 은행 간 과도한 경쟁에 의한 은행의 위험 추구
 - * 빅테크의 리스크가 제휴 금융사로 전이
 - *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의 금융업무로 위기 시 손실 흡수 제한
 - * 빅테크의 자금조달과 운용에서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성위험
 - * 빅테크의 실패, 운영위험 등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
- 금융소비자보호 저해 가능성
 - *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책임과 권리가 복잡해져 금융소비자보호 문제 발생 가능성
 - * 빅테크 출시 금융상품에 대한 낮은 금융규제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보호 문제 발생 가능성
- 금융업과 비금융업 간 차단의 불확실성
 - * 빅테크가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얻은 금융권 데이터를 금융업 뿐 아니라 자사의 비금융업에 활용할 가능성 (차단막의 불확실성)

Ⅲ-5 금융 겸업화 확대에 따른 경쟁 강화

▪ 겸업화 확대로 금융업권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경쟁강화

- 우리나라는 이미 금융지주회사 체제
 - 금융지주회사가 다양한 금융업권 자회사를 통해 모든 금융업권 업무 수행
- 이와는 별도로 디지털금융 확산, 오픈뱅킹 및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 → 금융업권 간 겸업 확대 전망
 - * 마이데이터 사업 → 금융상품 판매에서 실질적으로 겸업이 허용되는 효과 →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 시 기존 업계에서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권 간 칸막이 완화 요구 증가 예상
 - * 디지털금융 확산 → 전통적 금융회사들이 제공하던 상품과는 다른 각종 융합상품 등장,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제조, 판매 → 금융업권간 칸막이 완화로 융합상품을 제조, 판매하려는 요구 증가
- 개방화, 융합화하는 금융환경 → 향후 금융업권 간 칸막이 완화 요구 증가 예상

Ⅲ-5 금융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 강화

- 현재 국내 금융업은 거의 내수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.
 - 향후 개방 확대 시 금융산업 내 경쟁 크게 강화 전망
 - 금융산업의 개방화 확대와 이에 따른 외국 금융기관들과의 경쟁 강화는 향후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될 것임.

TABLE OF CONTENTS

I. 서론

II. 우리나라 은행 및 보험산업 현황

1. 은행산업 현황
2. 보험산업 현황

III. 금융환경의 변화와 영향 및 대응방안

1. 저성장의 고착화
2. 저출생 및 인구고령화
3.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금융업 적용 확대
4. 탄소중립 강화, ESG공시 의무화
5. 경쟁강화
6. 인공지능의 활용 확대
7. 비금융과의 융합

Ⅲ-6 인공지능(AI)의 활용 확대 현황

▪ 금융업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활발한 이유

- 신용평가·리스크관리·pricing 등에서 시스템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 지향, 양질의 빅데이터 존재, 비대면 거래 급증
- 인공지능(AI)에 의한 생산성 향상 가능성 높음.

▪ 인공지능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금융업무

-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신용평가, pricing, 리스크관리, (고객분석을 통한) 금융상품 추천, 담보물 가격결정, 시장분석 등
- 투자전략 수립, 포트폴리오 구성
- 고객응대
- Cyber-security and Fraud detection
- 기타 업무자동화 등

Ⅲ-6 인공지능(AI)의 활용 확대 현황 (계속)

■ 금융업에서 인공지능 활용사례

- McKinsey Global AI Survey (2019)

* 금융부문 응답자 약 60%가 소속 금융회사에서 하나 이상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.

* 금융회사의 프론트(front), 미들(middle), 백(back) 오피스의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

- WEF(2020)

* 응답자의 85%가 AI를 도입하고 있다고 응답

* 리스크관리 및 수익모델에 가장 많이 활용

- 국내에서는 이미 프론트오피스 (대고객 서비스, 상품기획 등), 미들오피스 (계약관리, 리스크관리 등), 백오피스(컴플라이언스, HR 등), 레그테크(RegTech) 등 금융회사 업무전반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음.

- 금융업권별 AI 활용 현황

(은행) 고객응대, 여신심사, 이상거래탐지 등

(금융투자업) 애널리스트가 작성하던 뉴스, 공시 등의 요약

(보험) 고객응대 등

(카드) 카드 부정사용방지(FDS), 상품추천 등

Ⅲ-6 향후 과제

- 정책과제 : 생성형 AI가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 (IMF 보고서 (Shabsigh and Boukherouaa 2023))
 - 데이터 프라이버시
 - ☞ AI가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, 기업 비밀, 금융거래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누설 또는 추측될 리스크
 - 내재된 편견
 - ☞ AI가 편향된 데이터 학습 → 의사결정에 편향 발생 → 특정 계층 등에 대한 금융배제나 사회적 신뢰 훼손 가능
 - 금융인프라로서의 리스크
 - ☞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 생산 → 고객의 의사결정, 금융기관 리스크관리에 부정적 영향
 - 금융기관의 설명책임
 - ☞ AI가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 금융기관이 충분한 설명을 다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의 신뢰 손상
 - 사이버보안·악용리스크
 - ☞ AI가 금융범죄, 시세조정 등에 활용될 수 있고 (악용리스크), AI에 대한 해킹(사이버보안)에도 대비할 필요
 - 금융시스템의 안정성
 - ☞ AI 보급 확대 → 의사결정의 자동화, 획일화로 금융시장의 순응성(procyclicality) 증폭 위험
 - 그밖에
 - * AI 개입 금융거래에서의 책임관계 명확화 필요
 - *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독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.

Ⅲ-6 향후 과제 (계속)

■ 경영과제

- 금융회사 내 AI 거버넌스 정립 필요
 - ☞ AI 도입 추진, 적정성 평가, 부작용에 대한 책임 등의 주체 설정
 -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필요
 - ☞ AI가 활용할 데이터의 생성과 확보, 통제와 관리 등의 주체 설정
 - AI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기존 직원 교육
- * AI관련 핀테크, AI 활용한 데이터분석 등에 대한 투자 확대

TABLE OF CONTENTS

I. 서론

II. 우리나라 은행 및 보험산업 현황

1. 은행산업 현황
2. 보험산업 현황

III. 금융환경의 변화와 영향 및 대응방안

1. 저성장의 고착화
2. 저출생 및 인구고령화
3.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금융업 적용 확대
4. 탄소중립 강화, ESG공시 의무화
5. 경쟁강화
6. 인공지능의 활용 확대
7. 비금융과의 융합

Ⅲ-7 비금융과의 융합

- 전세계적으로 금융과 비금융이 양방향으로 융합되는 '빅블러' 현상이 나타나면서 금융업에서 혁신이 나타나고 있음.
 - 빅테크·핀테크가 슈퍼앱을 제공하면서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.
 - * 금융서비스뿐 아니라 음식배달, 온라인 쇼핑 등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단일 플랫폼 내 통합된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앱
 - 은행권에서는 부수업무의 확장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이 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.
 - * 은행 부수업무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점차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임.
 - * 원칙적으로 은행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만 부수업무로 인정 → 최근에는 은행의 업무효율성을 높여주는 업무도 부수업무로 인정 →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

- 금융 겸업화 확대 → 금융업권 간 칸막이가 사라지는 추세
부수업무 확대로 비금융과의 융합도 확대
 - ==> 금융업이 업권 간 칸막이도 없어지고 비금융과도 융합하며 무한 경쟁의 시대로 가고 있음.

감사합니다.